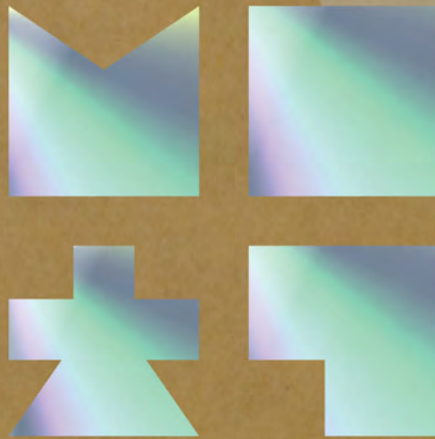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눈물을 담은
난민, 이주민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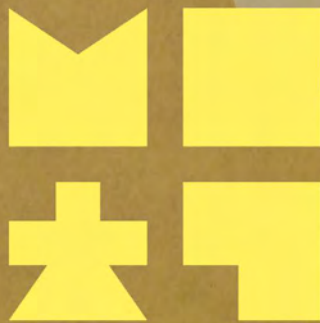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

2022 선교사 간증집

보물 찾기

그리스도의 눈물을 담은
난민, 이주민 이야기



그리스도의 눈물을 담은
난민, 이주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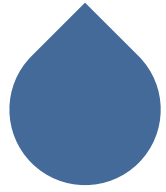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KLB)

들어가는 글

올여름 난민촌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형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집은 그저 평범한 난민촌 텐트였는데 청년들은 거기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 주인의 얼굴에 깃든 깊은 평화와 기쁨을 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웃리치가 끝이 나고 청년 중에 네 명이 중동 선교에 헌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선교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과 전쟁과 종교적 탄압에 내몰린 무슬림들을 오히려 세계 각지로 흩으심으로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무슬림들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지난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아프가니스탄인이었지만, 우리 손으로 구출할 기회를 주시고 특별기여자로 지금 여기, 한국 땅에 다시 보내주신 것도 예상로운 일은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



들을 한없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을 위해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정성껏 섬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이주민과 난민을 섬기는 온누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기쁘게 섬기고 있는 온누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안에 있는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영혼을 위해, 세계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시시오. 온누리 성도님의 진실한 기도 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선한 마음마다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40

담임목사

이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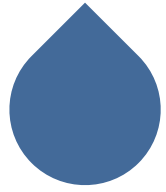
덧붙이는 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있으니 최고의 보물을 가진 셈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보물을 담은 그릇이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보면 한없이 자신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낙담해질 우리의 마음마저 미리 채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지상의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찾아 더는 낮아질 수 없는 곳인 말구유에 누워야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성탄의 축복은 더는 핑계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릇이나 포장이나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 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려지고 숨겨진 많은 보화가 있습니다. 내전의 아픔으로, 종교적 탄압으로,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으며 전 세계로 흩어진 수없이 많



은 난민과 이주민들입니다. 갈 곳을 몰라 헤매며 안전한 밤을 찾아드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아픔,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 앞에 놓이는 영혼들로 인한 아픔 때문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들은 말씀처럼 그 보물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물로 발견하는 자는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선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 가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나라에 선교사로 역파송되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간증집에는 세계의 곳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함께 국내 선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담지 못했던 국내 온누리M센터의 생생한 간증과 체험, 수십 년 만에 이룬 사역의 보고(寶庫)를 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들이 발견한 보물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장화연

목차

들어가는 글_ 이재훈 목사
별지_ 온누리교회의 선교 기관 소개

Part 1.

특별히 준비해 둔
보물

Part 2.

먼 곳에서 찾아낸 보물
해외 난민 선교 이야기

Part 3.

가까이서 찾아낸 보물
국내 이주민 선교 이야기

> 특별기고

- ◇ 광대한 하나님 나라로 자라날 작은 겨자씨 한 알을 심는 일 호주_리안 15

> 특별한 만남

-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특별기여자 이야기 국내_바나바, 에스더 25
바나바 선교사님의 이웃,
좋은 무슬림 N씨를 직접 만나다

- ◇ 선물 교환 레바논_아쉬레, 마리 45

- ◇ 제2의 창조 중동A국_파디, 파디아 53

- 소풍 레바논_박겸손, 장에스더 65

- ◇ 두려움을 이긴 믿음 이집트_황디모데, 송예나 75

- ◇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 영국_은혜의강 87

- 난민촌에 숨겨진 보물 폴란드_최피터, 최그레이스 97

- ◇ 행복한 새 노래 국내_임소망 111

-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배우는 것 국내_최요셉, 최한나 119

- ◇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국내_사라 129

용어정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021년 8월, 탈레반 정부의 위협을 피해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한국병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정부의 특별기로 입국하면서 ‘특별기여자’ 처우를 받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말한다.

시리아 내전

2011년 3월,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인명 피해와 난민 문제 등의 측면에서 대표적 비극적 사례 중의 하나로 꼽힌다.

수니파(Sunnis)

전체 무슬림의 약 87~90%를 차지한다. 이슬람 초기에 본류로부터 분파한 파로서 현재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 종파를 형성하고 있다.

시아파(Shiites)

이슬람의 한 갈래이며 이슬람 세계에서 수니파 다음으로 큰 분파다. ‘시아’는 사전적으로 ‘분파’라는 뜻으로 수니파(정통파)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엠비비(MBB, Muslim-Background Believers)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출신의 신자들을 말한다.

Part 1.

특별히 준비해 둔
보물

> 특별기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로
자라날 작은 겨자씨 한 알을
심는 일



저에게 선교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영혼의 밭입니다.

호주
리안

청년 시절에 고국 미얀마는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 부정부패에 대해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고 있었는데 교사였던 저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그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인도로 망명했지만, 그곳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이를 반기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고기(돈)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임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

어쩌다 님은 만남으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똥재우 목사님께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얀마 예배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온누리교회와 저의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근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일에 쉬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민주화운동, 인도로의 망명, 보장되지 않은 신분으로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공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결국 선임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제가 받은 보너스까지 나눠 주며 생산량을 높이는 등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자 공장 사장님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4

심령이 가난해진 저에게 예배는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말씀처럼,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보화를 다 얻은 사람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예배를 향한 영혼의 갈망은 내 속에 실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였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고(故)김사무엘 목사님께 일대일 제자 양육과 외국인 제자훈련학교(FDTS: Foreign Discipleship Trainin) 훈련, BEE 성경 공부 훈련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만 보면, “고향에 언제 갈 거야? 리안, 너도 결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지?”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습니다. 그때마다 “언젠간 가겠죠.”라고 넘기며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외국인 제자훈련 학교 졸업식에서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서는 졸업생들을 위해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시며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축복하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저는 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 목사님의 기도처럼 실제로 저를 세계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문득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거룩한 비전이 제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미얀마 예배에서 리더로 쓰임 받게 되고,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차츰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호주로 떠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인 우르에서부터 튀르키예 남부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 계보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나긴 여정



을 거쳐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3년을 보내고 난 뒤 저는 인도로 다시 돌아갔고 유엔난민기구(UHCR)에서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 2000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떤 일을 펼치실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호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망명한 미얀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교의 비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당장에 목회를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살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우리 가족은 작은 집을 임대해 살았는데, 그 집은 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먼저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 13명과 작은 가정예배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중 틈날 때마다 망명한 미얀마인들이 집을 구하는 일부터 학교에 등록하는 것 등 정착과 관련된 수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휴가를 쓰면서까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직장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을 돕는 일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정착 제 일에는 소홀해 해고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직접 저를 지원해 주겠다면서 이참에 아예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저의 삶은 더욱 고생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신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에 수업이 있으면 오후에 일하고,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오전에 일했습니다. 차에는 늘 작업복과 공구가 준비돼 있었고, 오죽했으면 교수님들이 저의 안색을 보고 병원에 꼭 가 보라고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집에는 미안마인들이 가득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터라 늘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야 했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처 쇼핑몰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다가 수업에 늦어서 눈앞에 보이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교수님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며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교수님은 평평 우시며 자기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불씨로 타오른 빅토리아친교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호주로 간 지 7년째 되던 해인 2006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예수님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 것뿐이었지만 제



가 목양하는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친교회는 나날이 부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은 성도 1300여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품은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현재 이곳 빅토리아친교회에서 더 큰 불씨로 커져 온 교회와 성도가 다 함께 선교사역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섬기고,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여덟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6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지만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았던 저의 신학생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생 18명에게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평생토록 다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온누리교회와 앞으로 협력하여 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손을 잡고 함께 미얀마를 복음화하고 열방 가운데 흠어져 있는 미얀마인들을 섬긴다면 미얀마도 언젠가 한국처럼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저와 같이 한국을 찾은 수많은 이주민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해 온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잠시 거쳐 가는 곳에 불과할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일꾼으로 세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마가복음 4:30~32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작은 한 알의 씨앗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한번 심겨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자라나 결국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열매 맺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온누리교회가 이주민들의 심령에 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이고 장차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재물보다 더욱 값진 영생을 얻도록, 노동자로 왔다가 선교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 주시길 바라고, 우리 빅토리아친교회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 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일은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일은 없다.

J. 허드슨 테일러



> 특별한 만남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특별기여자 이야기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 현장이고, 믿음이 실체가 되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국내

바나바, 에스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섯 가정이 이사 오던 첫날, 우리는 낯선 땅에 첫발을 내디딘 32명의 이웃을 맞이하고 부동산, 행정복지센터, 공장, 마트에 동행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에 두 명의 아빠들과 함께 남양주 온누리M센터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들에게 M센터를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 주고 싶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잠깐 센터를 둘러보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차에 타자마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N씨가 우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백미러에 N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센터 로비 벽에 붙여 놓은 성경 말씀 때문이거나 차량에 달아 놓은 십자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N씨의 질문에 “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는 좋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N씨는 “나는 무슬림입니다.”라고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 강조하며, “당신은 좋은 무슬림입니다.” 화답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N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천과 무슬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금 전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라는 질문에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면서 만난 첫 번째 크리스천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여러 명의 크리스천을 이미 만났을 것입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무슬림 중에는 이 말을 선교적인 접근을 방어하는 의미로 쓰며 미리 선을 긋는 이가 있습니다. N씨의 말 또한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N씨가 두 번째 우리를 당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웃으며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숨긴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굳이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작건대 한국어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우리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함께 섬기는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N씨일 것입니다.” 그의 말

에 백 퍼센트 공감에 갔습니다. 모든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N씨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M센터의 존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려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정이 이주하기 4일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남양주로 이주할 때 그들의 정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 마감 기한이 딱 하루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성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미술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선정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프가니스



탄 난민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이 끝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의 문을 새로 열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2021년 8월 26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언론은 ‘미라클 작전’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전 탈출 과정을 기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진천과 여수에서 적응 기간을 거쳤고, 올 초에 새로운 지역으로 흩어져 이주했습니다. 이들의 정착 지원을 요청받고 나서 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관련한 거의 모든 영상과 기사를 며칠 동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어느 군인의 인터뷰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건넌 도시락 같은 바구니를 열어 보니 그 안에 갓난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바구니가 바로 아래에 하나 더 있었고 그 바구니 안에도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는데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쌍둥이 아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터뷰의 주인공이 남양주에 이사를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쌍둥이가 첫 돌을 맞았는데 돌잔치를 해 주지 못해 너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개의 바구니 안에 누워 있는 쌍둥이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갈대 상자 속 아기 모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 갈대 상자에 몸을 숨겨야 했던 아기 모세는 후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 쌍둥이 아기뿐 아니라 군 수송기에 탑승한 39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모두 ‘아기 모세’로 여겨져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 군 수송기를 타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아기 모세처럼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240여 명의 자녀가 한국 땅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재건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떠오른 성경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왜 해야 하는가? 그들을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강도 만난 도둑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의 상황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 다. 출신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다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 다. 그가 그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은 이유는 그저 강도 만난 유대인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 다. 만약 강도 만난 유대인이 회복된 후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면 분명 사마리아인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그의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섬김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 맞습니다. 회심자를 얻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대개 무슬림이어서 개종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개종을 요구한다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회심자가 생길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가 1위인 국가로 기독교를 강하게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선교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와 공포를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S교회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들 가운데 지금 당장 회심자를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그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먼 훗날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

서 아프가니스탄의 리더가 된다면 적어도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 돌은 던지지 말자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는 이유는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어린 아프가니스탄 자녀들이 미래에 아프가니스탄의 리더가 되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열려 있는 정책들을 펴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은 이주민 사역이면서 동시에 난민 사역이고 무슬림 사역입니다. 따라서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슬림 사역은 오랜 시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애꿎은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이주 초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교회와 여러 단체 및 기관의 후원을 통해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멋진세상’의 후원을 통해 한국어, 상담, 미술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상반기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연결되고, 원장님 부부를 만나고, K자매가 통역 교사로 연결되고, 이란 예배의 S형



보물찾기

국내_바나바, 에스더

제가 초등학교 통역 교사로 연결되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이 연결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섬길 손길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만 한 변화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꿈

분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센터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여러 봉사자의 협력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앞둔 이 시점에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를 만지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N씨와 그의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두 아들은 대학생 정도의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면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꿈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만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도록 인도하소서. 앞으로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섬기거나 섬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모든 사역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는 꿈을 꾸니다. 한국 땅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떠난 조국을 새롭게 재건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기여자 중에 회심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물찾기

국내_바나바, 에스더

바나바 선교사님의 이웃,
좋은 무슬림 N씨를
직접 만나다

날이 유난히 좋았던 주일 아침, 바나바 선교사님의 글에서 만난 N씨를 찾아 남양주 온누리M센터로 향했다. 서울에서 남양주로 가는 길을 병풍처럼 에워싼 산은 초록으로 숨겨 두었던 제 얼굴색을 울긋불긋 다 드러내며 온통 가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N씨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로 지난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11세, 9세, 6세 그리고 1년 4개월이 된 네 아이의 아빠로 현재 남양주에 살고 있으며 곧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길 것이라고 했다.

작가: 한국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당시의 상황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N씨: 탈레반이 외국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총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7일 후에 한국 정부가 기적을 일으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 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와 우리 가족은 평안과 안전을 느꼈으며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함락될 때 생사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 조력자 약 378명을 군용 특별기를 띄워 구출했는데 일명 ‘미라클 작전(Miracle Operation)’으로 불린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의 신분을 주어 한국 체류를 허가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작가: 현재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N씨: 한국은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가족들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전에도 한국에 다섯 번 정도(2011, 2012, 2013년) 여행자로 방문해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보다 한국을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몰라 두려워하긴 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한국어를 잘합니다. 학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작가: 처음 차에서 바나바 선교사님을 만난 날 기억하세요?

N씨: 네, 기억합니다. 그날을 잊지 못하죠. 선교사님이신 걸 알게 된 것은 두 달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미스터 바나바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서 이름과 직장, 종교 등을 소개할 때, 바나바 선교사님이 자신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셔서 저도 좋은 무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좋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좋은 무슬림이 되기를 노력하고, 선교사님은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무슬림과 좋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고 서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N씨: 코란은 성경책과 매우 비슷합니다. 코란은 기독교 성경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은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동일합니다.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안내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이슬람교는 좋은 일을 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작가: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해 다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N씨를 만나기 전에는 약간의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이고 기독교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N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몇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제 종교 지도자 한 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군인들은 무슬림일지 몰라도 리더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 리더들은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해요. “나는 알-카에다, 탈레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무슬림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무슬림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종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두 종교는 비슷하지만 이슬람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신 알라만 믿으라고 하지요. 그러나 제가 잘 모르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믿지만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메신저이고 매우 좋은 선지자입니다.

작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알려주세요.

N씨: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요. 제 꿈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지금 당장은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한국에서 아내와 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저 혼자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있는 이태원에 아프가니스탄 음식점을 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원해 주신다면 그것이 제 꿈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음식점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더 기대하는 거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N씨: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2~3학년이라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막내의 어린이집을 위한 재정만 필요해요.

작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나요?

N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온 부모님과 친지들을 걱정했다. 현재로서는 2~3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무슬림이 되고자 한다는 N씨를 위해 센터를 함께 방문했던 권은영 목사님이 기도해주었다. 성경을 코란과 비교해서 읽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목사님의 권유에 흔쾌히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책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러겠다고 한다. 인터뷰를 끝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N씨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제 마음속 깊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신저로서 좋아합니다. 단지 알라는 다른 차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자 아스팔트 땅 위로 낙엽이 우수수 쏟아져 내린다. 겨울을 살아낼 추운 땅을 미리 다독여 주는 것 같다. N씨가 좋은 무슬림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 또한 진정한 크리스천은 좋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면 인생의 한겨울을 지나는 이들을 찾아가 선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눈앞에서 계절이 무르익어 감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구출한 것은 단지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다. 이것은 난민과 이주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되어 줄 것이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는 놀라운 선물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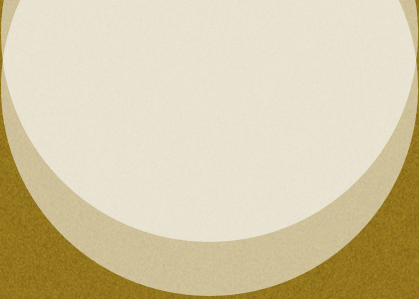
(취재 장화연 / 통역 이재희)

Part 2.

먼 곳에서 찾아낸 보물

해외 난민 선교 이야기





선물 교환



선교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의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선물하십니다.

레바논
아쉬레, 마리

난민촌 레바논에 숨겨진 보물

저는 이제 10개월 차에 접어든 풋내기 선교사입니다. 아직 언어도 부족하고 만남의 경험도, 사역의 경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곳 레바논의 베카 지역은 시리아 난민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가장 덥고 겨울에는 가장 추워 배고픔에 외로움까지 가득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난민의 삶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들을 섬기겠다고 왔지만, 때때로 마음처럼 그들만큼 낮아지지 못한 제 자신과 삶의 모습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분임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코로나로 막혀 있던 아웃리치의 발걸음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웃리치 팀을 통해 이 땅에 아픔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진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새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보물을 드린 청년들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 아웃리치 팀과 선교사들



보물찾기

레바논_아쉬레, 마리



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팀이 레바논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는지에 대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이들이 난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비싼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시계, 외장형 하드를 팔았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 속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돌아와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겠다 말하던 찬양의 가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청년은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비싼 물건들을 팔았을까요? 레바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정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 주셨고,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나서 레바논 땅의 단기 선교사로 나오기로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이 이 땅에 가득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겨워



보물찾기

레바논_아쉬레, 마리

보이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값비싼 보물,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셨고 결국 이 땅에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커다란 영적인 여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아웃리치 팀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왔고,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눔의 시간에 그동안 팀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 주던 청년 팀장이 자신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웃리치를 오기 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줌으로 열린 아웃리치 사전 준비 모임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친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웃리치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며 짐을 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레바논 땅을 밟았고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연을 말하기 전까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내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난민들과 난민 아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이였습니다.

저는 눈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큰 슬픔과 사건을 겪은 상황에서도 이 땅을 밟게 하시는 겁

니까?’ 연약한 선교사는 깨닫지 못했지만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쏟았던 여인처럼, 자신의 깨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레바논 땅을 밟았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고민과 의문이 많은 선교사이지만 아웃리치를 온 두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보물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눈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레바논 땅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난민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도 그 보석을 발견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정말 희생과 헌신이 전부 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레바논 땅을 밟았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을 밟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찾아낸 보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의 창조



길 잃고 방황하다 고통 받고 죽어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난민이 된 영혼을 평화의 사람을 통해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화위복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동A국
파디, 파디아

난민 사역을 시작하다

저희 부부는 2006년부터 R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정착을 하긴 하였으나 R국은 친러 정권이라 미국 시민인 저희는 비자 문제가 있어 내전이 일어나자 2012년, 많은 R국인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우여곡절 끝에 난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의 장기선교사 훈련인 OSOM 훈련과 본국 사역을 마치고, 2013년 3월에 R국 접경지대에 있는 E국 서북부의 I도시에서 난민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난민이 된 저희는 비록 처음 사역지는 아니지만 같은 처지가 된 그들과 더불어 지내며 사랑하는 그들을 다시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영혼 조이스에게 복음을 전하다

국경 도시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난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방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지원하는 구호품을 이들 각 가정에 방문해 전달하고 친분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난민들을 위한 교육과 전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가정은 조이스라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R국의 남부 지방이 고향이며, 전형적인 수니파 무슬림 가정의 계보를 잇는 집안입니다. 이 가정도 많은 다른 난민들처럼



럼 2012년의 내전을 피해 이 도시로 피난을 왔습니다. 조이스는 그 당시 14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심한 감기몸살로 누워 있었는데 외지인의 소리를 듣자 몸을 추슬러 히잡을 쓰고 나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는 E국에서 난민들에게 공립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할 나이에 집에서 허송세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영어, 수학 같은 필수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공부 후에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의 인물별 이야기를 15분 정도 들려주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슬람





지도자들로부터 잘못 배워 기독교를 나쁘게만 알고 있던 일부의 무슬림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진리였습니다.

조이스는 매주 두 번의 공부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고, 성경 공부 시간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큰 눈을 반짝거리는 몇 안 되는 아이들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극도의 체면 문화권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라 이슬람을 배교하거나 타종교를 옹호하는 일은 집안과 가문의 수치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명예 살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표정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아이



보물찾기

중동A국. 파디, 파디아

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응이 없어서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이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독교 명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과 부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의 한계에 부딪치다

2014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어느 날 밤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이스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성실하게 모든 공부에 긍정적으로 참석하던 아이라 뿌려진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용히 메시지로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뜻밖에도 “네”라고 쉽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기특해서 그 밤에 세 시간이 넘도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R국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시작한 지 8년, 처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신실한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기적을 만나는 순간이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이스와 함께 매일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서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고 나누기로 했던 조이스가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걱정 끝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제가 가르쳐 준 것과 성경에 있는 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49절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인간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슬람 선생님에게서 배워 왔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고 말했더니 ‘성령’ 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슬림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동원하고 최대한 성령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조이스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성령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성령을 체험하다

그러던 중 라마단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종을 한 조이스와 그녀의 친구 레이첼, H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자로서



보물찾기

중동A국, 파디, 파디아



살기가 어려워 E국으로 피난 온 마리아는 금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 점심을 같이 요리해서 먹곤 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같이 나누고 「더 바이블(*The Bible*)」이라는 미니 시리즈 중의 오순절 사건을 보는 중에 아이들이 성령 체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제 아내가 성령은 기도 중에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을 낳는다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성장하는 조이스에게 디스커버리 레슨(Discovery Lessons)이라는 12주짜리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이스의 친한 친구인 레이첼이 자기도 양육을 받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같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4주가 지나자 레이첼이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8년 만에 한 명의 제자를 얻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었습니다. 양육을 잘 마친 조이스와 레이첼이 세례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의 세례터에서 미국 교포 아웃리치 팀의 축복을 받으며 세례를 받았고 새로 태어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이스의 이웃에는 같은 나라 출신인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이스가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이웃인 나만의 집에 와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급하게 그 집으로 갔더니 나만이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침에 너무 무서운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여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울다가 나만의 아내가 이웃인 조이스를 불렀다고 합니다. 조이스가 꿈의 내용이 사탄의 괴롭힘인 걸 알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부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의 확답을 받고 2시간 넘게 복음의 진수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넷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부부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했고, 저희 난민 지역의 훌륭한 도우미로 섬기다가 요단강의 세레터에 가서 부부가 아름답게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위기상황도 전도의 도구로 쓰시다

그러나 수니파 무슬림 가정의 7남매 중에 첫딸로 태어난 조이스의 믿음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보던 조이스가 하룻밤은 성경책을 펼쳐 둔 채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딸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알고 극도로 화가 나고 예민해진 것입니다. 조이스의 어머니는 산파로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딸의 개종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해져서 병원에서 독약을 가져다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동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이스는 같은 고향의 알고 지내던 가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은 영적 전쟁이 극도로 심해지는 시기라 많은 개종자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명예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의 명수이신 주님께서는 조이스의 극한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에이미의 집에서 두 달을 안전하게 보낸 조이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이미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녀와 두 아들

은 현재 교회의 가장 훌륭한 기독교 가정이 되었습니다.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에이미의 남편은 개종을 완강히 반대했지만 에이미와 조이스의 금식 기도로 마음이 열려서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섭리인지요!

신실한 영혼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R국에 내전이 일어나자 조이스의 아버지와 큰오빠는 E국으로 피난 와서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를 통해 독일에 난민으로 정착해서 거주비자를 받고, 2016년에 조이스의 온 가족을 초청해서 조이스는 독일에 제3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독일에서의 생활은 무슬림 신봉자인 큰오빠의 핍박으로 E국에서보다 더 통제된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통로를 수소문해서 선교사 출신 사회복지사를 찾아 보냈습니다. 조이스는 그 자매의 도움으로 지옥 같았던 집을 탈출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의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스는 그곳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인 그레이스에게도 전도를 해서 그레이스도 그이듬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이스는 지속적으로 새로 사귀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여러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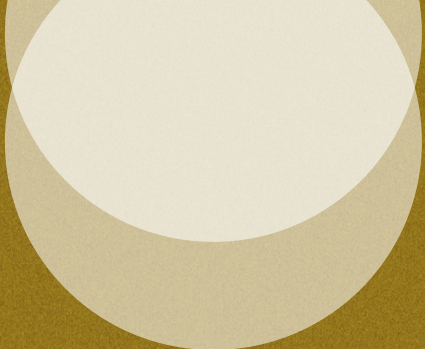
이후 조이스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난민 청소년들이 하기 힘든 대학 진학의 길을 택해서 지금은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대학을 마치면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주님의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내전 이후에 난민이 되었다가 주님을 알게된 수많은 R국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오히려 난민이 되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중동에서도 특히 R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니파 이슬람의 수호자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고향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는 것조차 기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된 처참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경이로울 뿐입니다.

조이스와 난민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풍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찾기 하듯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숨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과 숨바꼭질하는 것입니다. 밭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땅의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교지는 보물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 숨어 있는 보물섬, 더구나 보물은 단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

박겸손, 장에스더

고단한 시리아 난민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중 하나로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은 눈물과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난민들입니다. 이곳의 난민들은 인권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리 없습니다. 종교, 역사,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늘 멸시와 천대, 증오의 눈길을 보낼 뿐입니다. 난민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우리에게서 미래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난민들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호칭도 점차 형제, 삼촌으로 변합니다. 일이 있든 없든 아버지와 아들들은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밭일과 청소 등의 일에 종일 시달립니다. 아이들은 보통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저 해맑게 뛰어다니면서 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가 되면 역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 아이들은 13~15세가 넘으면 결혼을 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노리는 끔찍한 범죄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난민촌의 평균수명은 40세입니다. 겨울에는 어린아이들이 추워서 죽고 여름에는 각종 질병과 물 부족에 시달립니다. 암 환자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주



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난민촌의 남자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던 중에 하나뿐인 공이 차도로 굴러가자, 한 아이가 공을 주우러 나가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이들과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모들도 고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아이들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밖에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인데 직업이 딱히 없다 보니,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에 빠지거나 강도, 마약상 등 범죄



에 쉽게 휩쓸리기 일쑤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6·25전쟁 전후가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종교와 사상, 윤리 등은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중에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비비(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들입니다. 이슬람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태어나고 처음 들은 말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일 정도로 강한 무슬림에 속하고 반기독교 가치관



보물찾기

레바논_ 박겸손, 장에스터

을 갖고 살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도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람되고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무슬림 마을에서 혼자서 묵묵히 예수님을 믿으며 온갖 핍박과 차별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 빈민가에서 삶도 어려운데 친인척들로부터 개종의 핍박까지 견디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문맹이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며 어떻게든 어려운 아랍어를 극복한 사람들, 단칸방에서 장애 아이들과 함께 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이라며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합니다. 이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보물찾기 하듯’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저곳 온 레바논을 전부 찾아다녀 봐도, 다니면서 15가정 이상씩 제자 양육을 해봐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도시나 지역을 다 뒤져 보통 한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진짜 보물찾기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수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우선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우선 눈을 뭉쳐서 뭉쳐서 작고 단단한

눈덩이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참으로 쉽게 그저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교회개혁 운동, 즉 무슬림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예배를 세우는 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특수대원이 필요합니다. 교관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간증들, 하나님과 본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이슬람의 시아와 헤즈볼라, 수니파 IS, 폐쇄적인 공동체로 유명한 두르즈 마을 등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보물 감별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보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감춰 둔 보물과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된
재물들을 네게 주면 내가 바로 네 이름으로 불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5:3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시리아 난민촌과 빈민가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전도와 제자 양육, 가정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



보물찾기

레바논_박겸손, 장에스터

게 역사하십니다. 무슬림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당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운을 떼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준비해 갑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줄거리를 서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은 왜 물질적인 것들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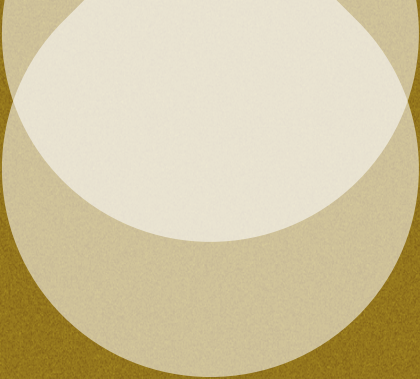


보물찾기

레바논 박경손, 장에스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아래, 곧 땅의 것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봅니다. 그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고민들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둔 밭의 보물을 찾고 바라본 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방문합니다. 마치 매일 소풍을 가는 기분이 듭니다. 선교는 소풍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보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또 숨어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숨바꼭질합니다. 지역도 베이루트 빈민가부터 저 헬몬산까지 지경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전체를 복음화하고, 중동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



선교지에서 만난 난민들은 고통과 상실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소망을 주셔서 그들의 민족을 축복하시려 하십니다. 엠비비들을 섬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
황디모데, 송예나

새로운 도전 앞에 서다

2014년, 두 번째 선교지인 이집트에 갈 때 48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인 아랍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선교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젊음의 시간을 보냈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튀르키예로 다시 가지 않고 새로운 언어권에 간다는 것은 분명 우리 부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기에 순종함으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반의 시간을 보낸 뒤 안식년을 갖고 있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기며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집트란 나라에서 만난 다양한 난민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며 영적 아버가 되어 살게 된 큰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뒤 아랍어 공부에 집중하는 한편 작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수단에서 핍박을 피해 온 젊은 기독교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의 요청으로 수단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기존 수단 교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교회 개척을 위한 핵심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수단인들이 난민 혹은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무슬림들이 있



었습니다. 만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기존 교회들과는 구별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가치들이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교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 아울러 ‘중동 북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단인 무슬림들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 형제들, 곧 엠비비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의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수단 교회들은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하거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구도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다지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엠비비들은 교회를 찾아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성경을 배울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들을 품고 성경을 공부하며 양육하는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차츰 수단 엠비비 가운데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형제들이 늘어났고 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다르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특히 수단에 있는 많은 종족들 가운데 다르포 종족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가 있는데 다르포 종족은 수단 남서부의 광대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 민족이고, 그들의 주거 지역은 다양한 천연자원과 농업에 유리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주의적 이슬람 성향을 가진 군사정권이 지배하는 동안 수단 정부는 아랍 무장 세력을 이용하여 다르포 종족으로부터 이 땅의 지배권을 착취하려고 오랫동안 내전을 벌여 왔던 것입니다. 다르포 종족 역시 무슬림이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수단 이슬람 정권의 지배자들이 다르포 종족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온갖 착취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반발한 다르포 청년들은 무장 세력화하여 정부군에 대항하여 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르포 청년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알라 아크바르!”를 외치며 무슬림인 자신의 종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슬람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고 “이것이 이슬람이라면 나는 이슬람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내전에 참가했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수단 내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자 난민이 되어 이집트로 이주했고, 난민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 중 일부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접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다르포 청년들 가운데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안토니를 만나다

그들 중 제가 만난 안토니는 수년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입니다. 처음 교회를 찾아온 날 안토니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나누었고 성경을 읽도록 권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안토니는 자신이 ‘불가지론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슬람의 알라가 참 신인지,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가 참 진리인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면서요. 그러냐고 대답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서 그는 드디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습니다.

무슬림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엠비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의 신앙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엠비비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가족들이 알면 자신은 핍박을 받고 가족에게서 쫓겨나며 직장도 못 구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엠비비들은 자신의 신앙을 속으로만 고백하고 겉으로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난민들은 이런 면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가족들을 지리적으로 떠나 있고 이집트라는 제3국에 살고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약간

의 자유를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회심한 형제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처음부터 살도록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엠비비는 영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보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믿음을 갖는 순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권면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격려합니다.

안토니도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받은 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믿은 지 약 1년이 넘는 시점에 고향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을 방문해서 자신이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간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은 뒤 수단을 향해 출발한 안토니는 수단 국경으로 가던 도중 경찰의 검문에 걸려 카이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실망한 형제에게 얼마 후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토니의 큰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카이로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신이 동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느꼈습니다. 안토니가 수단으로 가서 주님을 증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카이로로 오게 하고 안토니에게 그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토니는 긴장하긴 했지만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주님이 안토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기도



로 준비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후 안토니는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는 드디어 잘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강한 수니파 무슬림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장남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고 선포하였고 다음 날 당장 집을 빠져 다른 속소로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인이 된 ‘불신자(카피르: 배교자)’와 같은 집을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안토니는 어려운 마음을 부둥켜안고 아버지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이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암 말기의 시간을 보내던 큰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인 안토니의 아버지에게 “이번 카이로 여행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안토니의 집에 계속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아버지는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하고 종용하였고 친척 중 이슬람 신학 박사 출신인 사람에게 연락하여 안토니를 설득하려고도 했습니다. 결국 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카이로의 무슬림 무덤에 장사되었고 아버지는 슬픔을 안고 수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떠나는 버스를

답송하기 전까지도 아들에게 이슬람으로 돌아올 것을 말했으나 안토니는 “내가 찾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진리를 떠나 다시금 이슬람으로 갈 수는 없다.”고 고백하였고 두 사람은 슬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부자의 관계를 끊겠다던 아버지를 향해 안토니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금도 아버지와 연락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토니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지고 내면적으로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게 여겼던 가족들, 특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고 나자 더 이상 두려움이 자신을 얹매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의 신앙은 성장했고 주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며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안토니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동족인 다르포 종족을 위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겠다는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난민이 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소망도 없이 그 땅에서 무슬림 무장군대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가장 절박한 일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 형제와 함께 다르포 종족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려 하는 젊은이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르포 민족의 깊은 아픔을 보았고 청년들의 마



음에 서린 원한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난민들의 아픔 가운데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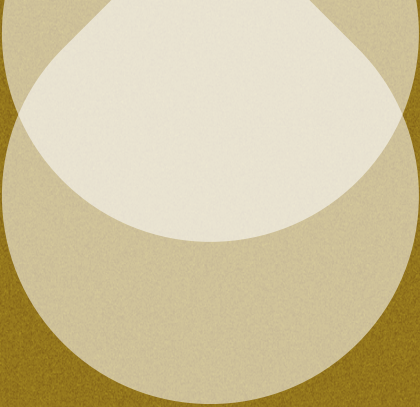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다

최근에는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멘 엠비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내전으로 예멘은 8년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내전은 이슬람의 두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되면서 생겨난 전쟁입니다. 이런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집트로 왔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엠비비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들이 성경적 진리를 잘 배워 믿음 안에 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 본 엠비비들 중 많은 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양육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만난 수단과 예멘에서 온 난민들,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속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 주십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영적 굶주림 속에서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 땅에서의 정착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살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나긴 여정



저에게 선교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감춰진 보화를 찾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영국
은혜의 강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주자들, 특히 이슬람권에서 온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살았던 나라와 지역, 그리고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실한 이유로 인한 트라우마, 내일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이유,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은 이들이 대부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주자 사역은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실제적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 때로는 지치고 영적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영적 순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목격할 때는 기쁨과 환희,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무신론자 A의 회심

제가 A를 만난 것은 2019년 10월 말 이란인들을 위한 그해 마지막 바비큐 파티에서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망명자나 난민으로 영국에 이



주해 온 이들은 집, 돈, 가족, 직업도 없이 정부가 보조해 주는 주급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과 필요한 용품을 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금액이기에 그들은 언제나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국땅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겹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여름에는 바비큐 파티와 관광을 통해, 다른 계절에는 실내 스포츠 게임, 식사 시간을 마련해 리더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보다는 친구나 자매와 같은 가족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바비큐 파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날도 저희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란인 세 명이 왔습니다. 그중 A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지쳐 보였고,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임에 나와 개종한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에 힘쓰라”는 전도훈련을 매주 1~2회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A를 데려온 B는 “파티에 오기 전 전도하기 위해 시내에 갔다가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 A에게 이란식 바비큐 식사가 있다.”고 하며 이 자리에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A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모임에 나오게 된 B와 C는 계속해서 A를 만나 성경과 교회에 대해 전하고, 모임에도 초청하였고, 마침내 A는 12월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표정, 같은 옷과 신발 차림으로 모임에 참석하여 조용히 앉아 있다 가곤 했습니다. 저와 동역하는 교회는 A와 같은 이들을 위해 중고 신발과 옷을 제공했기에, 저는 필요한 물품과 음식 등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를 방문하여 사는 형편과 삶에 대해 듣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해 2월 어느 날, B와 C로부터 급히 A를 함께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A는 며칠 전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 응급실에 얼마간 있다가 퇴원하였으며,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과 약물 치료처방을 받았습니



다. 그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으며,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말하며 위로하였습니다.

A는 12남매의 남매로 태어나 가족이 운영하는 큰 식당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독실한 무슬림인 가족들에 비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던 중에 10대 후반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들, 둘째 형이 앞장서서 신고하는 바람에 종교 경찰에 끌려가 40대의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모스크를 멀리하며, 이슬람 국가에서 금기했지만 불법적 경로로 구입한 담배와 술을 즐겼고 타투도 했으며, 특히 자신을 고발했던 둘째 형과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그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후 둘째 형이 자살을 하면서 그는 심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환멸로 인해 고민하다가 더 나은 삶을 찾아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국땅에서 지내는 삶은 자신을 더욱 외로움과 절망으로 이끌며 점점 삶의 희망을 잃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A가 예배에 참석한 후 외롭고 어둠이 밀려

을 때면 유튜브를 통해 이란어 찬양과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며, B와 C를 통해 성경을 전달받고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을 위한 단체 SNS방에 자신이 들은 찬양과 설교 자료들을 올려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차츰 성경 모임에 참석하며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햇빛, 공기, 그리고 물로 인해 꽃피고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동역자의 기도로 바짝 메말랐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축축해지며 심겨진 말씀이 뿌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의 얼굴에 점점 밝



은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에도 왕복 2시간이 넘는 교회 모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교회에 나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중보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란인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모임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주 수요일 오전 노방 전도에까지 참석하고, 만나는 이란인들을 교회에 데려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11개월이 흐른 후, A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간증에서 A는 “내가 믿었던 이슬람은 자유가 아닌 억압, 좌절, 불면증, 우울증, 두려움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자유와 평안, 은혜, 그리고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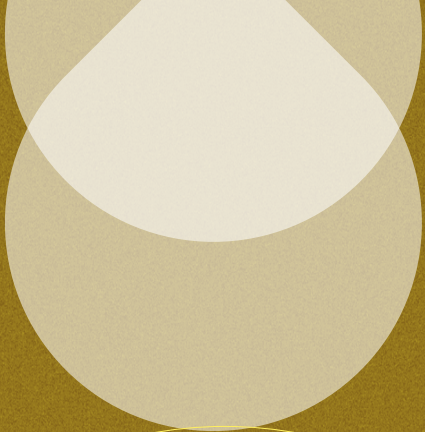
A는 저를 ‘선생님’ 대신 ‘큰누나’로 부르곤 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가장 큰 섬김을 받았다고 그런 저를 자신의 가족과 같은 의미로 부르고 싶다고 합니다. A는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직장을 얻을 기회가 많은 런던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이란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며 다른 이란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는 것

A와 같이 많은 이란인들이 제가 사역하는 브래드퍼드에서 난민의 지위가 부여될 때까지 6~24개월 정도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위한 시간, 영국 사회 적응 기간이 지난 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갈 곳을 찾아 다른 도시로 이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지만 삶의 목표는 비슷합니다. 바로 더 나은 삶, 물질적 풍요, 여러 이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 이주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더 나은 삶과 물질적 풍요, 자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돕는 영적 가족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난민촌에 숨겨진 보물

이 간증문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폴란드에서 귀한 보물을 찾았고, 그것은 바로
엄마의 집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
운 조각이 될 이 영혼들은 저희의 보물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
서 그 밭을 산다.”

폴란드
최피터, 최그레이스

폴란드 바르샤바에 오다

우리 부부는 OSOM(온누리교회 장기선교사 훈련) 32기 훈련을 마치자마자 발을 일굴 농부가 되어 재건의 역사를 가진 나라 폴란드 바르샤바로 왔습니다. 긴급하게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선교 훈련의 마지막 파송식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분의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저희를 이곳에 보내 주셨음을 실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수많은 난민 보호소들이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하나둘씩 문을 닫은 상태였고, 난민이 대거 유입되던 초창기에 왔던 봉사자들도 많이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줄어들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끊임없이 들어오는 난민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친 시기에 저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장에서 만난 난민들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 친인척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 지하 병커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 제3국에 갔다가 정착하지 못해 다시 폴란드 난민 보호소로 온 사람, 무엇보다 소망을 잃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위로와 포옹,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야 합니다. 저희의 모든 사역은 '복음 중



심 사역’이었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두고 기도하다

현장에 오기 전부터 저희는 난민 가운데 ‘엄마와 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의 봉사가 대부분 난민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난민은 ‘엄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세대를 두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남편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된 가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아



아웃리치 팀이 도우러 온다고 하였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과 엄마들 사역을 함께 감당해 줄 것을 모든 아웃리치 팀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역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 할 물품과 사역이 완전히 다른데도 모든 팀은 이 사역을 잘 준비해 주었습니다.

바르샤바로 입국한 지 정확히 2주가 된 날, 첫 아웃리치 팀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온누리교회에서 아웃리치를 가 본 경험도 없었고, 코디 선교사로 헌신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생애 첫 아웃리치 팀을 맞으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면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웃리치 팀이 입국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한 문제를 시작으로 첫 아웃리치 팀 사역 일정이 계획대로 된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서 저희 부부는 예기치 못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집(Dom Matk)을 돕게 되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운 계획은 모두 틀어졌지만 그 가운데 새로 발견한 보물은 바로 엄마의 집(Dom Matk)이었습니다. 엄마의 집은 난민보호소 글로벌 엑스포(Global Expo)에서 봉사하던 아나(Ana)가 임신부 여성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기관입니다. 아나는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일으켜 집을 구했고, 그 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모아 엄마의



보물찾기

폴란드_ 최피터, 최그레이스

집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귀한 마음으로 시작된 엄마의 집에서 지금은 약 30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글로벌 엑스포에서 허브 대학부 아웃리치 팀과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난민보호소의 코디 중 고샤(Gosha)라는 분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G: 당신들은 한국에서 온 봉사단이죠?

P: 네, 맞습니다.

G: 오늘 당신이 과일 컵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과일 컵을 나눠 주려고 했거든요. 혹시 제가 과일 컵을 만드는 것을 팀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P: 네, 저희가 과일 컵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G: 저희가 어제 아침 과일과 채소를 기부 받았습니다. 저희 창고에 있으니 그 과일로 함께 과일 컵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썰고, 담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P: 그럼요, 가능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후에 창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샤를 도와 과일 컵을 만들고, 빵에 잼을 발라 나눠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일 컵과 간식을 나눈 후에 고샤가 다

시 저에게 다가와 엄마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11명에 아이 21명이 함께 사는 곳이 있는데, 오늘 당신들이 여기서 했던 공연을 엄마의 집에서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엄마의 집 담당자 아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웃리치 팀과 방문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케줄을 확인했지만 가능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저희와 아웃리치 팀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한 집 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저녁 식사를 취소하셨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잠시, 저희에겐 엄마의 집에 갈 시간이 생겼고 그 길로 바로 엄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임신 7~9개월의 여성 세 명과 생후 6개월 미만 아기 세 명, 엄마의 수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엄마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위식을 보여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과 엄마들이 금세 위로를 얻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엄마의 집에서 우리들의 발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저는 “저희 내일 또 올까요? 내일은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



는 게 어떨까요?”라고 물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 정말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원래 일정은 ‘땅 밟기’였지만 땅 밟기 일정을 줄이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대형 식품매장에 갔습니다. 메뉴는 돼지불고기로 정했습니다. 한국 식품점에서 쌈장과 쌈 채소를 구하고 밤에 돼지고기를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인 교회에서 45인분 전기밥솥을 구해서 엄마의 집에 재방문하였습니다. 어제 작별인사를 나눴던 저희가 다시 온 것을 보고 놀란 아이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믿기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 일들을 행하시다

주님께서 엄마의 집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정말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호수아공동체와 함께 재방문하였고, 갈렙공동체와는 아웃팅을 했습니다. 갈렙공동체에서 준비해 온 전도지를 확인한 4세 아이의 엄마인 타티야나는 바르샤바에 교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주 주일에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중보자와 아웃리치팀이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관계 사역의 과정을 뛰어넘어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최소 몇 개월은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인간적인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워하고 있는 제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시는 주님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에 숟가락만 얹은 저희는 8월 14일 엄마의 집에 있던 두 가정과 함께 우크라이나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저희가 들어온 지 3주 만에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했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예배입니다. 이 예배



보물찾기

폴란드 최피터, 최그레이스

에 처음 온 비카(임신 5개월차인 미혼모)가 예배 후 식사 시간에 놀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박이 정말 먹고 싶다고 했고, 또 교회로 출발하기에 앞서 함께 온 타티야나에게 감자튀김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음식이 다 나왔어요! 놀라워요!” 우크라이나인 예배에서는 매주 예배 이후에 KFC 치킨과 피자, 그리고 과일을 먹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비카는 자신의 작은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각이 될 보물들

8월 21일에는 J4U, 포인트5 공동체 아웃리치팀과 ‘엄마의 집’ 일곱 가정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두 명, 태어난 지 9일 된 키라를 비롯하여 아이 9명과 엄마 6명이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참된 빛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했으며 삼위 하나님을 관념적, 문화적,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복음을 듣고 함께 울면서 축복했던 순간들입니다. 헤어질 때면 엄마들 가운데 “저희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이 간증문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도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다. 저희 부부는 폴란드에서 귀한 보물을 찾았고, 그것은 바로 엄마의 집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각*이 될 이 영혼들은 저희의 보물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그리고 앞으로 함께 예배할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각이 될 보물들입니다. 선교사인 저희 부부에게도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길 잃은 양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스탠리 하우어워스 기도문,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조각이 되기를」 중.

**민호기, 이현임, 김요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중.

Part 3.

가까이서 찾아낸 보물

국내 이주민 선교 이야기



> 모자이크 예배 공동체

행복한 새 노래



각 나라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마치 사도
행전 2장에서처럼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기쁨과 감격
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열방에서 온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꿈이 현
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내
임소망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 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 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 받으실 분이시다.

-시편 96:1~4

중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렵던 중국 사역도 어느새 자리를 잡고 사역이 할 만하다 느껴질 정도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착각한 채로 여러 사역을 벌이면서 심지어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오는 것마저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식년 선교사 훈련만 끝내고 돌아오리라 마음먹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 둔 채 현지인 제자들에게 잠깐 한국에 갔다 오겠다는 인사만 남기고 왔습니다. 그 길로 중국을 완전히 떠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며칠 만에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다시 귀국해야 했습니다. 중국 사역의 연장선으로 사역할 새로운 나라를



찾기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팀을 구성하던 중에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보다 더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안에 이미 열방이 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예전처럼 새로운 나라로 가서 새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보낼 시간에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파송 사역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국내 사역 팀에 합류하다

결국 중국 사역을 마치고 저는 안산 온누리M센터로 재배치되었습니다. 2019년 9월 하비스트 이주민 연합집회를 시작으로 국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연이어 국내 주재 러시아어권 집회인 ‘RUSTA’를 섬기며 한국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막 이주민 선교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달, 석 달을 보내며 대면 사역은 시작도 못 해 보고 비대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온라인 미디어 사역팀을 도우며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이주민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유행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4월 인천 지역에서 중국인 유학생 예배를 개척하기 위해 사역지를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인천을 리서치하며 교회 근

처의 대학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어렵사리 몇 명의 유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유학생들은 하필 코로나 기간에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 처음 만나는 엄마 닭을 의지하듯, 유학생들은 저와 점점 가까워졌고 의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승을 부리며 위협적으로 보도되는 코로나 소식은 유학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 주었고 그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 관계를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예배

2021년 7월 인천 온누리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이주민을 위한 모자이크 예배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수로 모이던 몽골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몽골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조금은 특별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준비부터 서툴렀습니다. 예배 세션이나 자막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에 목말라 있던 이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일단 한자리에 다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몽골어로 시작된 찬양을 러시아어로 받아서 불렀고 한국어로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사실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에 당연히 언어권별로 흩어져 예배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작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 달리 서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각 나라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17:1

어느 날 저는 열방에서 온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적이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은혜로 드러지던 예배는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통역, 다언어 자막 등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셈이었습니다. 첫날의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현실에 부딪치면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물이 계속 나와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올해 7월 1주년 예배를 준비하며 돌아보니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언어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솔직히 첫 단추를 그렇게 채웠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로마서 15:13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는 내내 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한계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길을 찾으려 할 때마다 한계라는 벽을 만났고, 그 벽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내 지혜와 능력의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자이크 예배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비전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46~47

지금 모자이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령 공동체로 발돋움
하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초대교
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처럼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각 나라
와 족속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예배
는 인천 지역에 정착한 열방에서 온 이주민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
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각 나라 백성 방언이 모자이크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
늘나라의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꿈꿉니다.



>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선교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배우는 것



선교는 날마다 나의 가면을 벗고서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진실한 내면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갈 때에 진정한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는 배고픔과 부족함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저의 기준이 됩니다.

국내

최요셉, 최한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의 땅 화성

2017년 2월 4일 화성시 향남읍에 개척된 화성 온누리M센터는 몽골인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평택에서 몽골어 예배를 섬기던 몽골인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만나러 화성의 발안 만세시장에 왔다가 이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알고 교회에 알리게 된 것이 센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이곳에 외국인들이 많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성시는 과거에 아픈 사건들이 많은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주민 사역자들이 이 지역을 정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곳에 센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침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신 한 분이 헌금해 주셔서 보증금이 준비되었고 서둘러 센터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화성 온누리M센터는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통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술집과 노래방, 호텔과 모텔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리 이름이 ‘3.1만세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서울의 3.1만세운동에 이어 바로 이곳에서 4월 5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만세운동을 한 지역 주민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끝까지 쫓아가 죽창으로 살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3대 신산업 동력이 될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바이



보물찾기

국내_최요셉, 최한나

오 산업단지를 화성시에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산그린시티라는 곳에 1700만 평이 개발되고 복선전철이 화성시에서 안산, 시흥, 서울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연 누구의 계획일까요? 사람들은 정부의 계획으로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

이 말씀 안에서 화성 땅에 M센터를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수나 교인 수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화성 지역에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물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가나안과 같은 기회의 땅입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것이 이곳에는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3대 신산업 동력의 대기업과 협력회사들, 12곳의 대형 산업단지, 19개의 중소형 산업단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코리안 드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화성 온누리M센터가 세워지기까지

2017년 2월 4일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오픈 예배를 드린 뒤, 온누리 교회의 재정적 지원과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물로서 화성 온누리M센터는 코로나 이전까지 연 500여 명이 찾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첫째 1년 내내 자발적으로 아웃리치를 와서 섬겨 주신 덕분에 외국인들 사이에 화성 온누리M센터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팔 공동체와 캄보디아 공동체도 만들어졌습니다. 화성 온누리M센터의 사역자들은 해외 선교사 출신인데 이주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 센터에 오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센터의 사역 안에는 공식적인 교육과 정도 있지만 봉사자들과 센터 밖에서 만나는 비공식, 비형식적인 만



보물찾기

국내_최요셉, 최한나

남의 기회도 있어 외국인과 봉사자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외국인들을 집으로 초청해 따뜻한 집 밥을 대접해 주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사역의 열매는 교회나 센터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거나, 그들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는 상호관계에 의해서 일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2018년까지 예배와 한국어 수업을 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봉사자들과 매주 목요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기도 중에 한국어 수업과 예배 공간을 분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봉사자님께서 헌신하셔서 새로운 장소를 임대할 때 필요한 보증금과 2년 치의 월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성도님이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마음으로 화성 온누리M센터의 제2센터를 마련하는 데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화성 온누리M센터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센터의 공간이 두 개가 되었고 교회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 인테리어까지 차차 완성되었

습니다. 예배 공간과 한국어 수업 공간이 나눠지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전에 진행해 오던 모든 예배와 한국어 수업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M센터도 앞뒤로 막힌 듯했지만 외국인들도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팔 예배에 나오던 형제들의 가족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은 네팔 공동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이 세상을 떠났는데 본국에 갈 수 없는 슬픈 현실에 모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실한 캄보디아 부부 이야기

캄보디아에서 온 사라피치-속서관 부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부부였던 두 사람은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의 사장님이 외부인 출입금지를 지시하면서 주말에 함께 지낼 장소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M센터에 찾아와 토요일 하루를 재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여 토요일 하루를 센터에서 잘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이들은 너무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센터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면서 센터의 사역자들과 이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에 파주에서 한 교회에 다녔는데 캄보디아 사람이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부부를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를 통해 캄보디아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부부는 더욱 힘을 내어 캄보디아 공동체를 섬겼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캄보디아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주변에서도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 부부를 좋아했습니다. 캄보디아 공동체가 10여 명이 될 무렵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와 함께 센터에 왔던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심방을 했습니다. 약간의 간식과 작은 선물을 가지고 주말마다 두세 군데의 공장을 찾아다니며 캄보디아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불교 신자인 캄보디아 형제들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모두 감사했습니다.

공부방 사역의 열매

2021년 화성 온누리M센터는 그동안 교제해 왔던 무슬림 자녀들과 고려인 자녀들을 위해 작은 공부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다. 처음에는 세 명의 중도 입국 학생에게 한국어와 수학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에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들에게 한국의 진로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며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기에 중도 입국 학생의 부모 입장을 이해하며 공부방 선교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수업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2022년 6명의 학생으로 공부방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소통의 기회를 이용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수업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복음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화성 온누리M센터는 외국인들에게 행동으로 예수님을 성경의 가치로 보여 주고 말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돕는 온누리M센터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 주변에 사는 수많은 무슬림입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사회의 규범을 따르기보다 코란을 따



보물찾기

국내_최요셉, 최한나

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마찰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중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생계 문제로 한국에 왔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무슬림들에게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들만의 진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에 강한 나라들이 포로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빌립, 베드로, 요한 등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외국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M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일면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아무 연고도 없지만, 왜 도와줘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준 고마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는 M센터가 되길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 이주민 사역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선교는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분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모든 상한 심령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께 서 만나게 하신, 별과 같고 보석 같은 형제자매를 통해 일하신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국내
사라

어려서부터 단일민족이라는 말에 엄청난 자긍심을 실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하게 쓰고 듣던 말이 어느 순간 ‘왜 단일민족을 그렇게 강조할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부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민족들이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바라시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주민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 중에서 특히 캄보디아인들을 만나서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소중한 형제자매들이 수없이 떠오릅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특별한 이방 청년들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넓이와 깊이 에 있어 품을 넓히시고 깊어지게 하신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이주민들과의 첫 만남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김포 온누리M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형제들이 주일에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짧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캄보디아 형제를 처음 봤을 땐 ‘일하러 온 성인인데 어떻게 저 몸으로 힘든 공



장 일을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왜소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 형제들보다 그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형제들은 매우 밝고 잘 웃었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 중 하나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봄,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형제들을 대상으로 토요 사역을 열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대부분 시장에 상품을 내야 하므로 토요일은 쉬고 주일에 일하는데, 농장주의 허락을 받고 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캄보디아어인 크마어로 나눈 후 사전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김포뿐 아니라 부천 농장에 있는 형제들도 연결되었는데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돕는 손길들을 더 보내 주시어 형제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농장이 위치한 경우가 많아 형제들을 데려오고 바래다주는 일이 사역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주민 근로자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사장님들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토요일 농장 사역을 하면서 캄보디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매년 온누리M미션에서 주관하는 추석 맞이 하비스트 이주민 연합수련회에 참여해 왔는데, 김포 온누리M센터를 섬기면서는 해마다 형제들과 함께 하비스트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해 집회를 다녀온 후에 한 형제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전도사님을 초청해 세례 교육을 하였고 세례식 당일에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 교회가 함께 축하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식 이후로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캄보디아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해 온 형제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팀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설교를 제대로 통역할 지체가 없어 기도하던 중에 L형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형제는 대구에서 일하다가 친구가 있는 파주로 새 일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김포에서 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L형제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오래 신앙 교육을 받았고 캄보디아 최고 명문 프놈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형제는 2019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김포 온누리M센터를 잘 섬기면서 수많은 형제들을 전도했습니다.

L형제가 오기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셀터를 우리에게 주셨고, 셀터는 형제들을 만나고 리더십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셀



터에서 지냈던 많은 형제 중에 T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먼 데 갔다가 쉼터에서 나누는 교제를 그리워하여 돌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좋은 리더십으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 형제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누나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형제도 한국에서 하던 일을 마치고 지금은 중국에서 약학을 공부하며 조선족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이주민 선교에 대해 아는 것 없이 뜨거운 마음만으로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신 시편 16편 6절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저를 보낸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사건 사고로 살면서 가 볼 일 없던 곳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각종 공장과 농장,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의 기숙사들도 심방하며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많은 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

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한국말이 아무리 어눌해도 더듬더듬 그들이 하는 말의 행간을 읽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안산에서 경험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의 전반 5년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그저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 있다가 쓰임 받은 나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인 M선교사로 훈련받고 안산 온누리 M센터로 옮겨서 캄보디아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산은 주말에 문을 여는 은행과 병원, 이주민 센터, 각 나라 마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지방에서도 이주민 형제들이 일 보러 왔다가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안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2018년에 결혼하자마자 우리 예배에 연결된 C자매 가정을 예배와 함께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는 크리스천인 한국 남편의 인도로 M센터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10년 일했지만 주말까지 열심히 일만 하느라 몸은 몸대로 많이 상하고 한국 사람들과 접



축이 많지 않아 한국어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M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게 하시고 세례도 받은 데 이어 건강 때문에 갖기 어려울 것 같던 아기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매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는 온누리M미션 내 스타트리 협동조합에서 재봉도 제대로 익히고, 종이꽃 공예도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권사님들과 바지를 만들어 선교지에 보내고 재봉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주 여성들을 세우는 유능한 교사가 되어 그 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형제들의 고민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 형제들의 고민은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형제들이 시골 출신이어서 안성 농장에 가서 자연농법을 배우기도 하고 타 단체와 손잡고 현지에 가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창업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캄보디아로 돌아가 교회 카페 사역을 해보려는 꿈을 안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형제 자매들도 생겼습니다.

귀환한 형제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하고 먹고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귀환한 형제들 간에 M센터 형제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던 중, 한 형제가 자기 집을 모임 공간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매주 프놈펜에

정착한 형제들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좌절을 맛보기는 했지만 협동조합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귀환한 형제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를 하는 형제도 있고, 한 지역 교회에 잘 정착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S형제는 2014년에 딱 일주일간 김포 온누리M센터 셀터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들었던 청년입니다. 그러고는 몇 년이 지나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 형제를 다시 만났는데 프놈펜에서 대학을 다니며 귀환 형제들의 모임에 함께하며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하는 형제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결국 세례도 받고 전도 훈련도 마쳤습니다.

S형제의 예를 통해 이주민 선교는 국내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와 연결해서 계속 사역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꾸준히 찾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연결하다 보면 주님의 때에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S형제와 교회 청년부 리더인 R형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이 없는 자매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같은 교회 내에서 믿음 좋은 리더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가 M센터 캄보디아 형제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믿음의 계보를 이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환한 형제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이 줄긴 했지만 한국에는 공식 집계로 약 4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있고 그중 3분의 2가 형제입니다. E9 비전문 취업 비자로 일하는 비율도 남자가 훨씬 많아서 캄보디아 이주민 교회에는 형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 생활 잘하다가 돌아간 형제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결혼하면 아내의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혼 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신앙 생활하는 형제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다져져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귀환한 형제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만져 볼 수 없는 큰돈을 한 달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잘 모아서 귀환한 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썸썸이가 있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해서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큰돈을 벌어서 줄 때만큼 가족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형제들이 전하는 복음도 힘을 잃게 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캄보디아 형제들을 향한 도전

안산은 2011년, 김포는 201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사역

이 시작되어 이제 귀환한 형제들의 수가 꽤 됩니다. 그러나 신앙도 잘 지키며 고향에 재정착하는 데 성공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 귀환한 형제들을 심방하면서 이제 더욱더 형제들이 예수님만을 소망 삼고 다시 일어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도 벌 어 봤고 그 돈이 얼마나 허무하게 자신들의 손에서 빠져나가는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한 지금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때임을 형제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이주민 선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2021년에는 멀게 느껴지던 한국과 캄보디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수련회를 비롯해 아웃리치, 성경 공부, 각종 모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따라 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길을 찾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

뒤돌아보니 10년의 세월 곳곳에 귀한 보석과도 같은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람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품을 넓히시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깨달아 알



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분 안에는 길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향후 5년, 10년 주님과 함께하며 캄보디아 형제자매들과 열어 갈 길도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기쁨의 길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별지

온누리교회 선교 기관을 소개합니다.



2000선교본부 (Main Body)

온누리교회 선교 기관들이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선교 정책 및 선교 재정을 수립하고 온누리교회의 모든 역량을 융합하여 선교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온누리교회의 선교본부입니다.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며 긴밀한 지원과 케어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선교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선교를 배우며 공동체 결연으로 현장 선교사들과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교회의 모든 선교 행사를 주관하고 국내외 선교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촉매 역할을 담당합니다.



온누리M센터 (Re-sending Body)

온누리M센터는 온누리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 29일 안산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M은 'Migrant(이주민)'의 약자입니다. 현재 온누리M센터에는 몽골,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 23개 국가별 공동체 (Community)와 5개의 다문화 차세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온누리M센터는 외국인 지원 센터로서 무료 의료 진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온누리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IM (Sending & Caring Body)

두란노해외선교회(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초교파선교단체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을 이뤄 가며 미전도 종족 선교를 포함하여 복음 전파, 전방 개척, 제자 양육, 교회 개척 사역에 힘쓰며 총 52개국 449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Acts29 Vision Village (Training Body)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교적 안목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인적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사 지원자 훈련센터입니다. 온누리 선교사들의 안식년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훈련, 일반 성도들의 영적 업그레이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선교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멋진세상 (Onnuri NGO)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온누리교회의 국제 NGO입니다. 유엔국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관으로서 현재 23개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멋진마을 조성, 다음 세대 희망 심기,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및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 선교사 간증집

보물 찾기

그리스도의 눈물을 담은
난민, 이주민 이야기

발행인 이재훈

발행처



발행일 2022년 12월 12일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번호 02-3215-3212

기획, 편집 2000선교, 장화연

디자인 시아와세(c-awase.com)

